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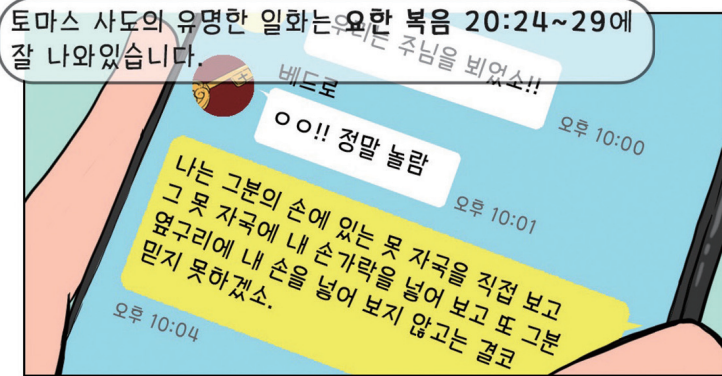
제 4 화

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은
사도 토마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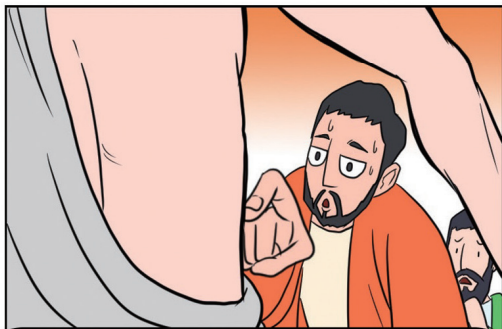
글·그림 : 송현철 안토니오



그는 예수님 곁에 늘 있었으며, 항상 솔직하고 직설적이었던 제자였습니다.



여드레 뒤에 제자들과 토마스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토마스에게 "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.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.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."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


이 구절은 토마스 사도의 의심 많은 믿음이라는 예화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.



토마스 사도는 성령강림 후, 구 이란 지역 또는 인도에서 전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인도에서 힌두교 사제들에 의해 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, 교황 바오로6세는 토마스 사도 순교 1900주년인 1972년에 사도를 인도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하였습니다.

